

사생활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은 본지 보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임핑 나이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남명IC 구간 광복 동원로 관통
- (당일 출퇴근) 10시~18시 (주말 휴무)
- 무전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320-7700



곽정철

곽정철 '싱싱투'...스타 탄생 예고

프로야구 2008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KIA 타이거즈에 '깜짝 스타'가 탄생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7일 히어로즈와의 목동경기에서 4년차 투수 곽정철의 깔끔한 피칭으로 4-2로 승리했다. 팀 5연패 탈출을 알리는 승리자 곽정철이 4년 만에 신고한 프로 데뷔 첫 승이었다. 이날 곽정철은 최고구속 152km의 '풀직구'를 앞세워 7이닝을 6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당당히 '광속구 군단' 멤버로 합류했다. 트레이드 마크인 강속구의 목직함은 물론 커브와 슬라이더의 움직임도 손색없었다.

뒤늦게 첫 승의 감격을 누린 곽정철은 미야자키 전지훈련 때 조범현 감독이 가장 눈독을 들였던 투수다. 곽정철은 2005년 입단 이후 두 번에 걸친 수술때문에 지난 해 3경기에 출전하게 전부였지만, 올 시즌



17일 히어로즈전 152km 강속구...7이닝 무실점 쾌투

이범석·양현종·임준혁과 함께 차기 에이스 기대주

조범현 감독의 신임을 얻으며 당당히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1군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곽정철은 시즌 두 번째 등판이었던 4월5일 한화전에서 부진하며 곧바로 2군으로 추락했다. 이날 곽정철은 9회말 9-3의 리드에서 등판해 5명의 타자를 상대해 볼넷 2개와 안타 1개를 허용하며 1실점하고 강판당했다. 경합미숙과 컨트롤이 문제였다. 경기 후 평평 눈물을 쏟았던 곽정철은 이후 1군과 2군을 오가며 코칭스태프의 애를 태웠다.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때면 빠지지 않고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타구단체에도 가능성을 인정받은 곽정철은 올 시즌 입단동기 이범석과 허비가 잇달리며 속 앞에도 많이 했다. 부동의 에이스 윤석민과 올 시즌 셋별처럼 등장한 이범석은 곽정철과 입단 동기다. 이범석이 프로데뷔 첫승에 이어 7승을 거머쥐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석민과 팀의 원투펀치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무명의 곽정철은 2군 벤치를 지켜야 했다.

엔트리 확대와 함께 지난 2일 다시 1군에 합류한 곽정철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반기 6경기에 등판한 곽정철은 한결 여유있는 모습으로 2.81의 평균자책



이범석

점을 선보이며 기량 다듬기에 나섰다. 그리고 17일 자신의 통산 2번째 선발 등판 경기에서 흡입을 데 없는 피칭을 과시하며 연패에 빠진 팀을 구해냈다.

KIA 특유의 '싱싱투' 계보를 잇고 있는 이범석과 곽정철, 하반기 들어 부쩍 성장한 좌완 양현종, 위기의 마운드에서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올 시즌 5승을 챙긴 임준혁 등 신예투수들의 활약이 그나마 팬들의 4강 좌절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료들 탄원서 받아 오라”

법원, 정수근에 이색 요구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정수근 선수의 음주폭행 사건을 심리중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정 선수에게 동료 선수들의 탄원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운삼 판사는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정 선수에게 같은 팀 동료 선수들의 탄원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선수의 음주폭행 사건으로 팀 동료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팀의 선수 운용에도 차질을 빚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팀 동료들이 피해를 본 만큼 동료들의 탄원 의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 선수는 현재 팀 주장을 맡고 있는 조성환 선수를 만나 선수단의 탄원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했고 조 선수와 로이스터 감독 등 코치진 등이 직접 나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선수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등 2명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메이저리그 소식

추신수 1안타 2타점

‘완벽한 선수’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작시타로 타점 2개를 보냈다. 추신수는 18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경기에서 좌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5타수1안타 2타점으로 게임을 마쳤다.



이들 만에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1회 삼진, 4회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2-2 동점인 5회 2사 2,3루에서 미네소타 선발 스코트 베이커의 초구 시속 150km짜리 바깥쪽 빠른 볼을 밀어쳐 좌중간 쪽 안타를 때렸고 빠른 발로 2루에 안착, 시즌 27번째 2루타를 때렸다. 그 사이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아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53으로 늘었다.

7회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6-4로 앞선 8회 2사 1,3루 타점 찬스에서는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났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00(종전 0.302)으로 약간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6-4로 이겼다.

이치로 8년 연속 200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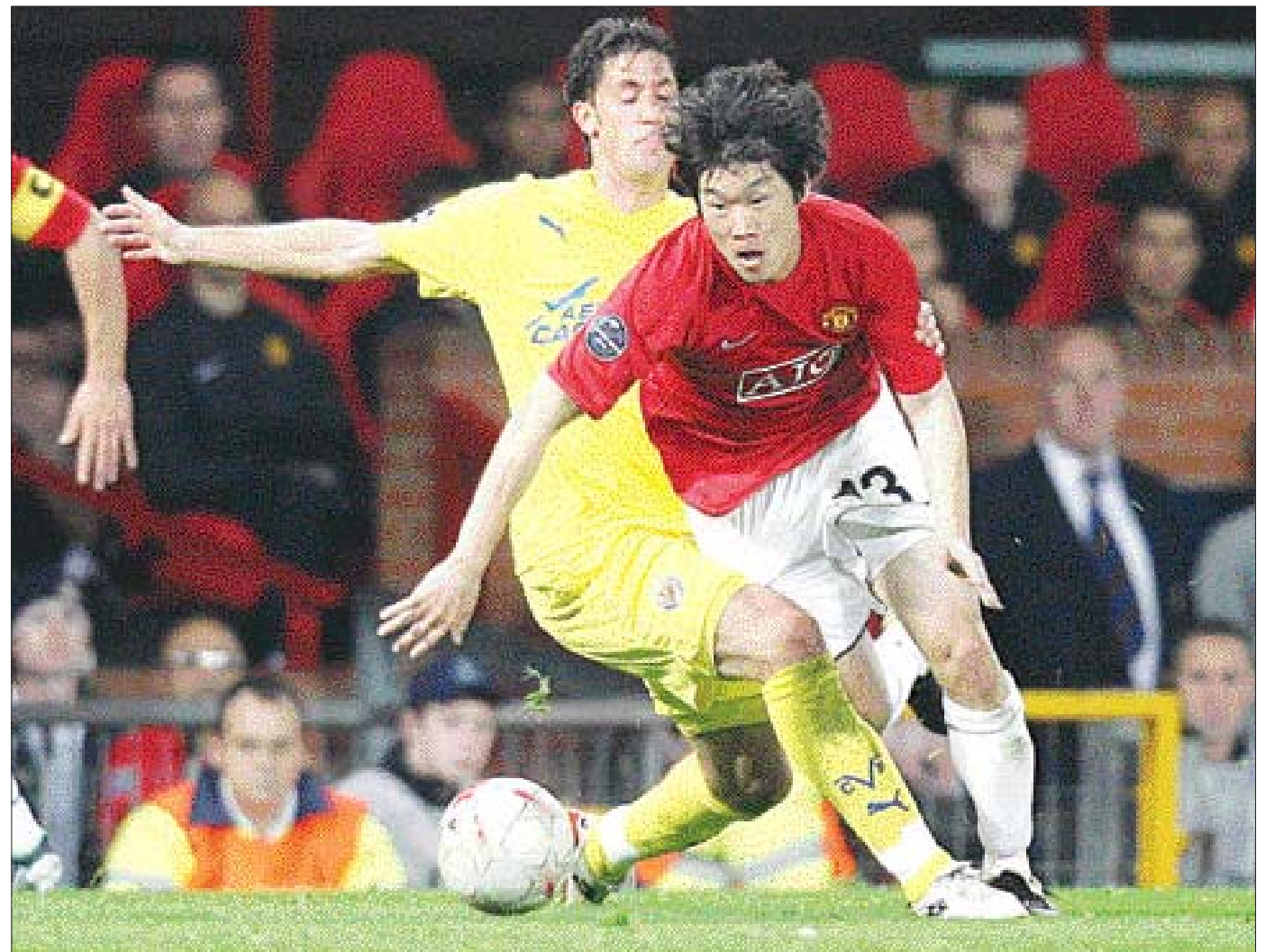
일본인 안타 제조기 스즈키 이치로(35·시애틀 매리너스)가 8년 연속 200안타를 때려 미국프로야구에서 이 부문 타이 기록을 세웠다. 이치로는 18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캔

자스시티 로열스와 방문 경기에서 3타수3안타를 때려 시즌 200안타를 채웠다.

2001년 시애틀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치로는 이로써 8년 연속 200안타를 달성. 윌리 길러가 1894-1901년 이룩한 이 부문 최다 기록과 107년 만에 타이를 이뤘다.

빠른 발을 이용해 안타를 만들어 내는 데 탁월한 재주를 보인 이치로는 2001년 데뷔 첫 해 242안타를 때렸고 2004년에는 무려 262개나 터뜨려 조지 시슬러가 보유 중이던 메이저리그 한 시즌 최다 안타(257개) 기록을 84년 만에 갈아 치우기도 했다.

메이저리그에서 해마다 그가 때린 안타는 평균 224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블루웨이브(현 오릭스 버펄로스) 시절까지 합해 그가 이날까지 때린 안타는 17년 통산 3천70개에 달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18일(한국시간)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벌어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비야르 레알간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비야르 레알의 호안 카르데날라로부터 태클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6시즌 연속 챔스리그 뚫는다



스페인 비야 레알전 선발 출전 후반 호날두와 교체...팀은 비겨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여섯 시즌 연속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뚫었다.

박지성은 18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08-2009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32강) 조별리그 E조 1차전 비야 레알(스페인)과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다.

이로써 박지성은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 소속이던 2003-2004 시즌부터 6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다. 그동안 무릎부상으로 정규리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지성의 선발 출장은 시즌 처음이며, 후반 교체 투입됐던 지난달 30일 제니트(러시아)와 UEFA 슈퍼컵 이후 두 번째 출전이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지난 4월30일 2007-2008 대회 준결승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2차전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 뒤 5개월여 만이다.

박지성은 4-4-2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를 맡았다. 오랜만의 출전이었지만 박지성의 몸놀림은 가벼웠다. 전반 23분 플라치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오른발슛이 상대 에드미우손의 몸에 맞고 코너 아웃때 득점 기회를 놓치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박지성은 후반 14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발슛을 날렸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박지성은 62분을 뛰고 후반 17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교체됐다.

맨유는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두 팀이 수비벽을 쌓은 비야 레알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 0-0으로 비겼다. 같은 E조의 셀틱(스코틀랜드)과 울보르(덴마크)도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맨유는 10월1일 덴마크 원정에서 올보르와 2차전을 치른다. 박지성은 경기 후 “맨유에서 경쟁이 쉬웠

던 적은 없었다”며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박지성은 부상 복귀 후 리저브 게임에서 컨디션을 조절할 틈도 없이 경기에 투입됐다. 그럼에도 오늘 경기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러시아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수비수 김동진(26)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유벤투스(이탈리아)와 H조 1차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는 얻지 못했다. 제니트는 유벤투스를 맞아 나름대로 선전을 펼쳤지만 후반 31분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에게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패했다.

제니트와 같은 H조에 속한 레알 마드리드는 라모스 세르지오와 키토관 니스텔로이의 연속골에 힘입어 보리스코(벨로루시)를 2-0으로 완파,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 밖에 G조의 잉글랜드 아스널은 디나모 키예프(우크라이나)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은 다니엘 관 바이텐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F조의 슈테아우아 부쿠레슈티(루마니아)를 1-0으로 물리치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연합뉴스



반가운 얼굴들

한일 OB 친선전을 하루 앞둔 18일 선수들이 상암 서울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용수, 양정철, 홍명보, 고정운, 김도근. /연합뉴스

오늘 한·일 OB 축구 올스타전...오후 8시30분 서울서

“친선경기이지만 일본에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창립 75주년 기념 한일 OB 올스타전(19일 오후 8시30분·서울월드컵경기장)에 나설 양년의 축구 스타들이 현역 때와 마찬가지로 필승 각오를 다졌다.

1990년대 한국 축구를 이끌었던 홍명보, 최용수, 서정원, 유상철, 고정운 등 OB 올스타들은 일본전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3시부터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진행된 공개 훈련에서 “친선전이지만 상대가 일본인 만큼 반드시 이기겠다”고 입을 모았다.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전 올림픽대표팀 코치는 “몸은 예전만큼 100%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축구팬들이 지켜보고 있고 자존심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명보 코치는 최근 잇따른 졸전으로 축구대표팀에 쏠리고 있는 팬들의 비난을 의식한 듯

“백패스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1997년 9월 프랑스월드컵 최종예선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지다 동점골을 넣어 2-1 역전승으로 ‘도쿄대첩’의 발판을 놓은 서정원도 “몸은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 이번 경기는 친선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도쿄대첩에 함께 뛰었던 이상순, 최용수 등과 당시 얘기를 많이 했다는 서정원은 “2주 전부터 모여 고교 팀과 2경기를 했는데 몸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